

## 게이소쿠지 절

게이소쿠지 절은 승려 교키(668~749)가 735년 고코산지 절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곳이라고 전해집니다. 그러나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버려져 황폐한 건물이 되었습니다. 전설에 따르면 799년 승려 사이초(767~822)가 닭의 안내를 받아 잊힌 절을 발견하게 되었고, 그래서 게이소쿠지(계족사)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. 게이소쿠지 절은 고다카미야마 산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. 현재는 가을 단풍으로도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. 매년 가을이면 게이소쿠지 절로 올라가는 긴 계단은 양쪽 단풍나무 가로수에서 떨어진 단풍잎으로 붉게 뒤덮입니다.

게이소쿠지 절은 산속에 있어 찾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방문 시 우선 고코카쿠, 요시로카쿠 수장고에 들러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
### **불상: 고코카쿠, 요시로카쿠 수장고**

과거 고다카미야마 산의 절에서 모시던 불상들은 현재 고코카쿠와 요시로카쿠, 두 곳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. 이 시설은 나가하마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유지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불상들은 700년대 초에 제작되었으며 자비의 보살인 십일면관음 입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십일면관음 입상은 게이소쿠지 절의 본존으로, 일본의 중요문화재입니다. 또 다른 회귀 소장품으로는 치유의 부처인 약사여래상 7구가 있습니다. 약사여래상 7구는 극락정토의 일곱 영역을 상징하는데, 일반적으로는 불상 하나의 광배 부분에 여래 여섯을 추가하여 만듭니다. 수장고에는 이러한 불상 외에도 이 지역을 다스렸던 유력 가문인 아자이 가문과 도요토미 히데요시(1537~1598)가 고다카미야마 산의 절을 후원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